

한국어 · 웹 교정판 PDF / 2026-09-21

돌아서 간 길

김성민의 자전 에세이

김성민 지음

© 2026 김성민

개인적인 읽기와 인쇄를 위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웹 교정판의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mathskim.com/story

목차

1편 번호판을 읽던 아이

2편 타고난 사람들 틈에서

3편 다시 수험생이 되던 날

4편 조용히 무너지는 자리

5편 무대에 서기 전에

6편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번호판을 읽던 아이

이 글에 실명이 나오는 분께는 미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러 갔다가

영국의 학원에서 케임브리지 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학생처럼 입시를 준비하러 영국에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 전역을 앞두고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했고, 영국에서 여러 일을 하던 중 익숙한 수학 강사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제 이력을 짧게 소개할 때는 케임브리지부터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길을 처음부터 정해 놓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주는 일을 했고, 군에 갔고, 영국에 갔습니다. 다시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그 길에서 생겼습니다.

그 전의 저는 수학만큼은 늘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잘하는 과목이 있다는 것은 편한 일입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적어도 그 과목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준비를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꽤 일찍, 중학교 통계 시험에서 배웠습니다.

잘하던 과목에서 틀렸을 때

1991년 2월 9일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둔산동에 살다가 월평동으로 옮겼고 성룡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차에 타면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기억한다기보다 부모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에서 경시대회 대표로 뽑혀 상을 받았습니다. 5학년 2학기 10월에는 서울로 이사해 은정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거기서도 수학 영재반에 들어갔고 전국 단위 경시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했습니다. 목일중학교를 거쳐 서울의 일반고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학을 못하던 아이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손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제 어린 시절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만 풀다가 틀려 본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틀린 뒤에 손으로 쓰는 습관을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중학교 때 통계 시험에서 크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 공부를 소홀히 했고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시험을 봤습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말이 그 단원의 준비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개념을 읽고 알겠다고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문제에서 실제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수학은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어느 날 한 번에 얻은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학생 때 친구들을 도와줬고, 나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유롭게 탐구할 때와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준비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그 차이를 보면서 지금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배우던 사람이 가르치게 된 일

고등학교 때 다닌 학원에 최경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오시고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수학 실력이 뛰어나셨고, 제 안에 있던 것을 많이 끌어내 주셨습니다. 과외를 받거나 인강을 들어 본 적은 없어서 학창 시절에는 그 학원에서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은 아드님의 과외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분이 자기 아이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칭찬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수학을 이제 다른 학생이 알아들도록 설명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르뉴가'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라고 재촉하셨다면 저는 반항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생활의 규칙만큼은 조금 더 분명히 잡아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워낙 반항적인 아이라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믿어 주시라고 말할 때, 아이에게 아무 기준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응원하는 일과 생활의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학생이 되기로 하다

2009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5월부터 학원 자습실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강사 일이었습니다. 그 뒤 군에 갔고, 전역하기 전에 영국 워킹홀리데이 YMS 1기 선발 공고를 봤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영국에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케임브리지를 준비하던 학생을 만났을 때 저는 이미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저 자신도 다시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쪽에 서 있다는 이유로 공부하는 쪽의 길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학보다 수학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수학과 지원자가 치르는 STEP 시험을 봤고 모두 S, Outstanding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입학에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비 전액에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장학생으로 트리니티 칼리지 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10대 때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서움을 모르는 나이였고 지금도 그 성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더 좋은 성적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중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지 마."

수학을 좋아하던 아이가 수학과에 들어갔으니 이제 모든 공부가 즐거웠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맞지 않는 과목을 공부하며 수학이 싫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던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공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사람들 틈에서

이 편에 나오는 동기들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불려 간 날

케임브리지 수학과 건물인 CMS의 도서관에서 자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학장이었는지 사감이었는지, 아무튼 높은 분께 불려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집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공부하느라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시험 전에는 거의 날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저는 버락치기형 인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 습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학 시절로는 썩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계획대로 공부했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고, example sheet라고 부르는 문제지를 여러 번 복습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공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Part IA에서 First를 받았고 트리니티 칼리지의 College Scholar가 되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생입니다. 성적만 적으면 도서관에서 자다가 불려 갔던 학생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두 가지가 다 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답을 구한 다음에도 남는 것

입학하고 첫 학기의 supervision에서 제가 서툰 부분을 느꼈습니다. 학생 몇 명이 supervisor와 마주 앉아 풀어 온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문제 풀이에 집중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식과 단답형에 익숙했고, 긴 호흡으로 열린 문제의 풀이를 끝까지 써 내려가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답을 구하는 데 익숙한 것과 풀이를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의에서 출발했는지, 다음 줄로 넘어가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써야 합니다. 익숙한 시험에서 잘하던 일이 있어도 다른 형태의 문제 앞에서는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제 경우에는 이 수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싫다고 느낀 때도 있었습니다. 제게 맞지 않는 과목을 공부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다는 말과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만나는 수학의 모든 부분을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과정은 Part IA, IB, II를 차례로 치르는 Mathematical Tripos였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마치고 BA를 받았고, 이후 시간이 지나 관례에 따라 Cambridge MA를 받았습니다. 학위 이름은 짧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늘 잘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수학을 하던 사람

동기 중에는 시험 기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수학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미쳐 있었습니다. 늘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타고났다'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곁에서 본 것은 그 친구가 수학에 쓰는 시간과 열정이었습니다.

각국의 IMO,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1등은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재능의 영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학 전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만으로 이후의 성적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오래 붙드는지도 그곳에서 보게 됐습니다.

저 역시 First를 받았다는 결과만 남기고 버락치기까지 좋은 방법이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전에 몰아서 공부했던 일과, 그동안 기출과 example sheet를 반복해서 풀었던 일은 나눠 봐야 합니다. 지금 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엇을 반복했는지입니다. 밥을 새우고 도서관에서 잔 일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와서 이어 간 공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1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봅니다. 졸업 직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동안 학업에 공백이 생겼고, 돌아와 다시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니라 그 점은 괜찮았지만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책을 오래 들여다보다 목디스크 전조 증상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증상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을 말하면서 성적과 학위만 골라 적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부가 잘된 때의 기록 옆에는 다시 따라가야 했던 시간과 몸에 남은 문제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장소로는 뉴턴의 책이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뉴턴은 트리니티 사람이었고 그의 책이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공부했다는 기억과 CMS 도서관에서 자다가 혼났던 기억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것 중 지금 수업에서도 쓰는 것은 정의를 정확히 익히고, 뜻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그곳의 수업 방식을 한국의 입시 교실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대학 수업과 입시 수업의 목적도 다르고 학생과 교사의 비율도 다릅니다.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와 교육 환경까지 생각하면, 배워 온 것을 여기의 교실에 맞게 풀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미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며 GRE 수학 과목시험을 봤습니다. 일반 GRE가 아닌 전공시험에서 99th percentile, 상위 1%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원에는 지원하지 않았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지금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과외하러 다닐 시간에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지 그랬어." 성적을 조금 더 올리라는 말보다 먼저 떠오릅니다.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고 계속했지만, 그 밖의 대학 생활에도 조금 더 시간을 써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 일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학생들에게 말하던 방법을 저 자신의 시험에서도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곁에서 조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도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다시 수험생이 되던 날

이 편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썼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연세대학교 치의예과 논술전형 최초 합격은 중국집에서 혼자 확인했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합격을 보고도 밥은 마저 먹었습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했고, 반응은 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합격의 순간은 그 정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따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 홈페이지에 써 놓은 것을 본 아이들이 있었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준비할 때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 떨어지면 조용히 없던 일이 됐을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을 본 이유까지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말하는 내가, 정말로 한국의 수학 시험에서 그 방법을 써낼 수 있는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 보고 혼자 시험을 봤습니.

강사가 앓은 시험장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졸업했으니 돌아왔고, 곧바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대입 수학을 가르쳤습니. 케임브리지에 가기 전부터 하던 일이 이제 본업이 됐습니.

제 이력을 들으면 왜 고3 최상위권이나 의대 논술반이 아니라 고1·고2를 가르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이 어디서 어려워지는지, 고1부터 단계를 밟아 현장에서 더 확실히 보고 싶었습니다. 공부법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작은 틈이 나중에 댐을 무너뜨리는 것에 빗댔습니. 그 틈이 생기는 때부터 학생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고사는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수능보다 앞서 치러졌습니. 아침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필기구와 수험표를 들고 시간에 맞춰 갔습니. 고3 수험생들 사이에 서른 살의 강사가 앉았습니.

수학은 네 문제였습니다. 첫 문제에서는 주사위 눈의 수로 직각이등변삼각형을 만들고 둘레와 내부 격자점 개수의 기댓값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삼각형 안에 선분을 그어 만든 다각형들을 다뤘습니. 벡터의 합을 이용해 세 변과 만나는 다각형의 개수가 모두 같음을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케임브리지 첫 supervision에서 서툴렀던 것처럼, 긴 풀이를 끝까지 써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안을 쓰면서 아, 이거 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자리 수험생의 답안지는 거의 백지였습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쓴 대로 100대 1이 넘는 경쟁이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제 생각은 의외로 짧습니.

시험이 끝난 뒤에는 아마 또 일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의 일을 대단한 장면처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격도 일을 멈추고 기다리던 자리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다가 알았습니다. 시험은 제 생활 속에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풀 수 있다는 것

논술 다음에는 수능을 봤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해 원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기하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에서 세 과목 모두 원점수 100점을 받은 기록입니다.

현역 수험생들 사이에 앉아 시험을 보면서 나이 차이는 당연히 느꼈습니다. 그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잘 넘어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는데도 막힌 자리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풀 수 있는 다음 문제로 가야 할 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풀이를 멈추고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스스로 다음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수험생 자리에 앉아서 봤습니다. 이후 교실에서 시험 운영을 설명할 때도 그 경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 장의 성적증명서는 제가 그 시험들을 풀 수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다만 제 점수가 곧 학생의 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이 자기 문제에서 써 볼 수 있게 하고, 어디서 멈췄는지 확인하는 일은 따로 남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일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격 다음의 생활

치의예과에는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제 일이었고 학교는 계속 쉬게 됐습니다. 두 일을 함께 하기에는 학업 부담이 컸습니다. 2024학년도 약학과 논술을 다시 본 데에는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으로 옮기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초 합격이었지만 약학과에는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두 곳에 동시에 적을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력에는 치의예과 합격, 약학과 합격이라고 나란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 다니고 강의를 계속하는 일은 그 두 줄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가와 합격한 뒤 그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법 책에는 수학을 훈련으로 익히는 '해독의 기술'이라고 썼습니다. 그 말에 제 시험 경험을 보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던 제 이력을 지운 채 누구나 저처럼 하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알아내는 일이 더 필요했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 수업했다가, 의대관의 가장 높은 반에서도 너무 빠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제 답안을 완성하는 일과 교실에서 학생의 풀이를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자리

이 편에 나오는 학생 유형과 예시 대화는 여러 학생의 모습을 합쳐 구성했습니다. 특정 학생의 기록이나 실제 대화의 재현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반에서도 빠르다고 했다

의대관의 가장 높은 반에서도 제 수업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2024년, 강남대성 기숙학원 의대관을 처음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제 페이스대로 수업했습니다. 높은 반이라는 이름이 그 속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는 날은 새벽에 일어나 강남대성에서 셔틀을 탔습니다. 이천의 기숙 의대관까지 가서 강대 콘텐츠를 다루는 반을 맡았습니다. 의대에 가려고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 앞에서 강의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어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이 그 설명을 따라오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빠르다는 말은 단순히 말하는 속도만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강사가 한 줄을 설명하는 동안 학생은 앞줄의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게는 높은 성적의 학생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을 보며 그것을 배웠습니다. 성적이 높으니 이 정도는 알겠다고 건너뛰면 빈틈을 놓칩니다. 학생의 등급을 아는 것과 지금 설명하는 개념을 그 학생이 아는 것은 별개의 확인이었습니다. 제 수학 실력만으로 그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다고 대답한 뒤에

그래서 수업을 열 때는 선수 지식을 간단히 묻습니다. 안다고 하면 정말 아는지 되묻습니다. 지수함수 수업이라면 이런 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수법칙 알아?" "네." "2의 0제곱은?" "1이요." "왜 1이야?" 여기까지는 실제 학생의 대화를 옮긴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답이 1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학생도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 강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한 번 더 말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어느 법칙을 알고 어떤 연결을 놓쳤는지 알아야 다음 설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학생이 자기 말로 답해 볼 자리도 필요합니다.

손으로 쓰라고 해도 쓰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틀려 봐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으로만 풀다가 틀린 뒤에 습관을 들였습니다. 다만 학생이 그것을 배우는 시험이 중요한 시험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미 아는 이야기를 또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는 그 말을 납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리고 나서야 손을 움직였던 것을 생각하면, 말 한 번으로 습관이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한데도 멈춰 있는 학생

학생이 공부에서 멀어지는 모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래는 여러 학생을 합쳐 쓴 유형입니다. "어차피 재수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마음이 벌써 내년으로 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있지만 올해의 공부를 밀어 둡니다. 그 학생에게는 문제를 더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도 봐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과 게임만 하러 다니는 학생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달라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의지라는 말로만 설명하면 매일 누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집을 여러 권 풀고 오답노트도 만들고 인강도 듣는데 제자리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무조건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넘기는지, 이해했다고 생각한 개념을 혼자서도 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공부법 책에서 가장 오래 붙들고 설명하려 한 것도 그런 학생의 공부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그럴 때는 머리가 좋다는 평가만으로 공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부만 하면 잘할 텐데..." 실제로 시작하고 이어 가게 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는 걸 틀려요." 아는 것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고 풀어내는 것까지 실력이라고 답합니다. 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수학, 머리로 풀지 마라』에 따로 썼습니다.

점수보다 먼저 보려는 것은 행동입니다. 눈으로만 보던 학생이 풀이를 적는지, 틀린 문제의 답만 확인하던 학생이 맞힌 문제의 이유도 되짚는지 살펴봅니다. 행동이 바뀌었다고 바로 성적이 오른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성학원 재종에서 재수생도 가르쳤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라 안다고 생각하지만 풀어 보면 빈틈이 드러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고1·고2 학생들 중에는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의 학생을 가르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모든 재수생과 고1·고2를 나누는 법칙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실에서 만난 모습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대성마이맥 라이브인 대인라와 강대K 파이널에서는 하반기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학생의 손이 멈추는 순간이나 눈이 문제에서 떠나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의대관에서는 빠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맞춰야 할 속도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강에서는 화면 너머 학생이 멈춰도 제 강의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짚는 일과 학생이 따라왔는지 살피는 일을 함께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법을 만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 글에서 효과를 앞질러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높은 반에서도 빠르다는 말을 들었던 제가, 화면 너머에서는 아무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대에 서기 전에

이 편에 나오는 다른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받았던 문제

시간을 조금 앞선 2021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매쓰코리아 마지막 현장 시강에서 저는 미적분 킬러 문제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하루쯤 전에 미리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에는 대표를 비롯해 열 명이 넘는 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만 알아듣는 풀이가 되지 않도록, 더 넓은 범위의 학생이 따라올 수 있게 구성을 짰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하는 강의였지만 결국 제가 보여 드려야 할 것은 학생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는 실력과 그 풀이를 전달하는 일을 함께 평가받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계기는 웹에서 본 광고 배너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논술과 수능을 준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대성마이맥과 대성학원이 함께 여는 제1회 수학강사 공개선발대회였습니다. 강사를 하고 있었으니 지원했습니다. 거창한 사연은 없었습니다.

1위는 아니었다

선발은 서류, 지필시험, 강의 영상,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 보이는 강의와 심층 면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뽑는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시험지에 답을 쓰던 논술시험과 달리 이번에는 설명하는 저 자신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순위 입상자 두 명 중 한 명으로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1위는 아니었습니다. 1위에게는 상금 1억 원과 대성마이맥 인강 런칭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화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내가 국내 최고의 교육기업에서 선발됐구나, 열심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마다 최고의 회사를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날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먼저 남은 것은 1위를 놓쳤다는 사실보다 선발됐다는 사실입니다.

입상과 인강 런칭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력에 매쓰코리아를 한 줄 적을 수 있게 됐지만 1위에게 주어진 무대가 곧바로 제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교실과 라이브 수업에서 가르쳤고, 앞에서 쓴 의대관 수업도 그 사이의 일입니다.

12월까지 해야 할 일

대성마이맥 강의는 2026년 초 회사 임원들과 논의해 확정됐습니다. 시작 예정일은 2026년 12월 14일입니다. 수능 수학 전범위인 대수·미적분 I·확률과 통계와 공통수학1·2를 고1·고2 강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대수·미적분 I·확률과 통계에서 수학이 출제되므로 이 시기의 공부가 수능 준비와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미적분 II와 기하까지 넓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확정된 강좌는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준비된 수업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연구실과 촬영하는 본사, 집을 오갑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은 이어집니다. 몇 년 전에는 선발대회에서 한 문제의 강의를 보여 드렸지만, 이제는 학생이 계속해서 듣게 될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상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준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할지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빠르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도 있고, 학생이 안다고 말해도 다시 물어봐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화면 너머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Trinity MathsLab은 2026년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 인강 런칭을 함께할 팀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수학을 배운 칼리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핵심 인력 위주로 팀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했습니다. 팀의 인원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수업을 만드는 일, 찍는 일, 학생을 살피는 일을 나눠 맡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학생을 살피는 방법을 만들고, 함께 실행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방법을 이 글에서 먼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회사의 이름이나 새로운 도구가 생겼다는 사실과, 학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할 일이니깐요.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과장입니다. 없는 효과를 있다고 말하지 않고 방법이 노력을 대신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잘 팔렸으면 하는 마음과 이 기준은 같이 갖고 가야 합니다. 팔고 싶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대를 앞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대로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해." 잘될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준비하고 본사에서 찍고 집에 와서 이어 하는 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강의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이 바람을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찍은 수업을 더 많은 아이들이 듣고, 잘 따라왔으면 합니다. 공부법 책을 쓰기 시작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수학, 머리로 풀지 마라』에는 손으로 쓰는 습관, 개념을 먼저 익히는 일, 맞힌 문제까지 되짚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수업에서 매번 충분히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먼저 읽어 두면 강의를 듣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열세 편이고 한국어와 영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mathskim.com에서 가입 없이 휴대전화로 전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무료로 공개한 이유도 더 많은 아이들이 읽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이든 혼자 공부하는 중이든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공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풀이를 적거나 틀린 이유를 남기는 일은 결국 읽은 사람이 해 봐야 합니다.

저도 묻게 됩니다

쓰는 동안에도, 다 쓰고 나서도 이 책이 정말 잘 쓰였는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의를 찍고 책을 냈다는 것은 제가 할 일을 했다는 뜻이지, 학생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는 뜻까지는 아닙니다. 의대관에서 가장 높은 반도 제 수업이 빠르다고 했던 일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책 속의 현우는 가상의 학생입니다. 실제 학생의 개인정보를 쓸 수 없어 여러 학생에게서 본 모습을 한 아이에게 모았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소개한 학생 유형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사례를 특정 학생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책의 방법을 써 본 학생이라면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읽었는지보다 어디에서 다시 막혔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쓰였느냐는 질문은 제가 원고를 덮었다고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

"아이를 믿으시되, 생활의 규칙은 분명히 잡아 주세요." 부모님께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제 부모님은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더 잘하라고 재촉하셨다면 반항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동시에 생활의 규칙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아이를 믿는다고 해서 매일의 생활에 아무 기준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세운다는 이유로 더 잘하라는 말만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드리는 말이지, 모든 가정에 똑같은 규칙을 정해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나중의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저도 무서움을 모르던 아이였고 벼락치기형 학생이었습니다. 늘 반듯하게 공부해 온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기출을 풀고 문제지를 다시 풀었던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공부를 실제로 해 보자는 뜻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다음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묻는다면 농담부터 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는 '1타'라는 말이 있고 그 위에 '0타'를 말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타'가 되고 싶습니다. 농담입니다. 절반은요. 더 많은 학생이 찾는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고1 교실에서 손으로 쓰라고 말하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학생이 제 말을 바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틀리고 나서야 바꾼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강사이고 싶습니다.

번호판의 숫자를 보던 아이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자리를 여러 번 오갔습니다. 영국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다가 케임브리지에 지원했고, 졸업 뒤에는 강의하다가 다시 수험표를 들었습니다. 학생 앞에서는 제가 아는 것이 많았지만 그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까지 저절로 알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서 간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묶었습니다. 돌아왔으니 전부 잘됐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학교를 쉬면서 강의를 이어 간 일도 있고, 학생에게 너무 빠르다는 말을 들은 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끝난 이야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12월에 시작할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실과 촬영하는 본사, 집을 오갑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좋아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잘해 보고도 싶습니다. 집에 와서도 일은 이어집니다.